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성의 고취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윤백임·편집자>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중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은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앵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576호 현대불교
서기 2006년 5월 3일(음력 4월 6일) 수요일
법공양 페이지

B25

각자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진짜 믿어야

이렇게 정신계의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을 보니 너무나 감개무량합니다. 필연적으로 해야 할 문제이지만 모두 만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 살면서 혼자 못 산다는 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모두가 인연에 따라서 그것이 말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발전도 하고 창조도 하고, 창조력을 기르기도 하고 이렇게 나가죠. 내가 왜 꼬집어서 이런 말만 하느냐 하면, 최초의 근본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고받고 주고받고 돌아가는 것이 법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틀리고 내는 때는 여러분 각자가 없었다면 무효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있기 때문에 인연 소치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돌아가는 그 자체를 바로 진리라고 하고요. 그 진리가 끝난 데 없이 '나'로 인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각자로 인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니라. 그런데 그 하나는 어디 있는고?" 하고 물으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 있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있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인해서 여러 분야로 발전도 할 수 있고... 이 생활이 그대로 과학입니다. 그리고 생활 자체가 그대로 참선입니다. 우주의 근본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끌어내려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법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내 마음에 있다." "어떤 것이 참선인가?" "생활 참선!" 여러 마디 거론되는 말을 쑥 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 근원이 어디 있는가? 근원에서 들이고 내는 생활 속에서 '나의 주인공(主人)이다.' 할 때 주인공(主人)은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공(空)은 여러분이 활동할 때에 돌아가는 그 자체입니다. 참나참나로 변해서 돌아가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 공'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되돌아라. 되돌고 침착하게 관찰하라.' 합니다. 그냥 일하면서, 앉아 있으면서도, 서 있으면서도, 누워 있으면서도 무엇을 하든지 참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되는 것을 '이것이 슬기롭게 돌아가게 하는 것도 여기다.' 하고 놔둘 때에 그게 들려놓는 겁니다. 됐을 땐 감사하게 놓고, 그리고 진짜 나를, 진실한 나를 구할 때는 '참나가 있다는 증명도 거기서만이 해 줄 수 있다.' 하고 놓고 관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놓을 때 바로 '관해 본다' 그러죠? 그것을 '관찰'이라고 합니다. 관찰! 그리고서 또 실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진짜로 무조건 믿고 물러서지 않는 도리에 놓고, 그렇게 체험하고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틀고 앉아 있는 것이 참선이 아닙니다. 즉, 관찰하면서 지켜 보면서 실험하면서 체험하고, 진짜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큰 것에서부터 조그만 것까지 내 앞에 용도에 따라 닦치는 대로 놓고 관찰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무조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이게 뭐고?' 하고 열네 날 있어도 뭐는 됩니까? 그냥 뭐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에 선지식들께서 표현하시기를 '수박을 놓고 이게 뭐냐고 아무리 돌려 가면서 봐도 맛은 알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조그만 거든지 큰 거든지 내가 실험을 통해서 관찰하고 내가 체험을 해 봐야 그 맛을 알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참선입니다. 앉으나 서나 누우나 일하나 행하는 것을 좌선·입선·와선·행선이라고 합니다. 그 네 가지가 다 한꺼번에 돌아가는 것이 바로 생활입니다. 그래서 생활 참선이라고 합니다.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자, 이 세상 돌아가는 일체 만물 만생이 다 공안(公案)이 될 수 있고, 만물만생이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도량이 될 수 있고, 내 없은 자리가 될 수 있다가 됩니다.

이대로 찾아다니다. 또는 모르는 게 있으면 경전을 들춰 본다고 해서 그 진의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든 알든, 못났든 잘났든 내가 길을 가다가 없더라면 그 땅을 짓고 일어사야죠. 땅을 짓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자리 걸음발이 가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 우리는 50% 무(無)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걸음 발입니다. 그래서 다리 한 짝을 먼저 일으켜 세우는 도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눈은 애꾸입니다. 눈 한 짝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한 짝을

마져 뜨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마음자리에서만 일체 만법이 나고 들고 나고 들고 하는 거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관찰하면서, 실험하면서 체험을 안 한다면 그런 참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 몸으로나 가정으로나, 모든 것을 습득을 해서 모든 관습을 놓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알고 보면 상당히 쉬운 일인데도 자기를 자기가 못 믿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못 믿고 뭘 그렇게 알아야 하고 따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 배웠고 잘났고, 똑똑하고 못났고, 못하고 못 배웠고 이런 거를 몽땅 다 놓는 겁니다. 놓는 거라고 하니까 놓는 거에 또 걸리지 마십시오. 내 육체를 나라고 하거나, 내가 했다고 하거나, 내가 가졌다고 하거나, 모든 걸 나라고 일컫어 세운다면 모두 물로 보이기 때문에, 상대로 보이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가 연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업이 녹질 없어요. 과거에 입력된 것이 살살 나오는 위에도 또 자꾸 업을 지어서 미래에 나오게끔 입력하는 겁니다. 지금 입력되는 거는 미래에 가지고 나올 것을 미리 저장하는 거죠. 저장 아닌 저장이죠. 여러분이 그 업을 안 지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이젠 자동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각자 자신을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지 않았습

있으리라고 전제하고 여쭙 보겠습니다. 가령 인도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중동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다고 할 때, 세계적인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면 그분들은 다 함께 그 일을 하시기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봄에 걸프 전이냐 없게냐의 L.A.폭동 사건 등을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인이 동시에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동시에 마음을 낼 것이고 특히 깨달으신 분들은 더욱이나 빨리 평화로운 상태가 오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분들이 마음을 내셨기에 더 크게 일이 번질 것이 그쯤에서 끝난 것인지, 그렇게 보아도 되는 것인지, 또 인연도로서 마음을 내시지 않고 그냥 보고 계산하고 생각할 일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큰스님: 아이구, 질문이 장장이군요. 아주, 하하하... 그러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낸다. 안 낸다' 이런 언어도 붙지 않습니다. 내가 항상 이렇게 말했죠? 우주와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과도 가설이 돼 있다고요. 우리 각자 개개인이 자기발전소라면, 종합된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불바퀴라고 합니다. 밟바퀴라고도 하죠. 그럼 또 이런 말을 한마디 더 해야겠습니다. 깨달은 분이 수가 없이 많다 하더라도 한 밟바퀴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낱알의 물방울이 (뭍을 겁 무렵에 조금 부어 보이시며) 수천수만이라고 하더라도 물방울이 여기 다 들어가면 한 그릇입니다. (뚜껑에 있는 물을 컵에 다시 부으시

관찰하면서 지켜보면서

실험하면서 체험하고

진짜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내 앞에 용도에 따라 닦치는 대로

놓고 관찰하는 것이 참선!

니까? 신은 육을 입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래, 내 신을 두고 남의 신을 찾고 믿어야 하겠습니까? 자신(自神)을 두고! 자신은 정신계에 속하고, 육은 현실계에 속하는 겁니다. 항상 육은 끌려다닙니다. 마음의 주인공한테. 그러나 잘못 돌아가는 거는 거기가 되놓고 잘 돌아가게 해서 서로가, 누가 더 높고 앞을 잃어 실패하면서 같이 작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래는 같이 작용을 하는데, 지금 유심(有心)에서는 도저히 정신계와 물질계가 한 데 작용을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체계스럽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그렇게 가고 있으니 그걸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고? 이렇게 되는 거지, 저렇게 되는 거지! 이게 틀리지, 이게 옳지!' 이런다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믿고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이끌어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따져야 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자기한테 자기가 따지는 겁니다. 아무리 따져 봤자요. 그러나 '이렇게 해야 맞지, 저렇게 해야 맞지!' 하고 자꾸 잔소리가 심하고 이론이 많아지고 그런다면 전자와 전자가 어떻게 마주 붙어서 붙어 들어옵니까? 네? 자기한테 자기가 따지려고 드는 사람처럼 어려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심사숙고해서 여러분은 진짜로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믿고, 자기 주먹만을 믿고 주먹에서 나오는 거 주먹에다가 도로 놓는 마음이 이 세상을 다 지닌 한자라, 그 주먹 아닙니까? 허허하...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자(남): 먼저, 매월 첫째 일요일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법행제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 주시고 좋은 법문을 해 주시는 큰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질문을 여쭙고자 합니다. 이 지구상에 마음공부 하시는 분이 또

매 한 그릇! 진리라는 게 자동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런 일이 생겨서 퍼뜩 알았다 할 때, 모두 불바퀴에 본래 직결이 돼 있으니까 한 줄 나에 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마음을 내면 스위치가 울려지는 격입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한 찰나에 회의가 벌어지는 거와 다름없습니다. 이것도 자동적입니다. 회의가 벌어졌다가 그 모든 응신(應身)들이 거기에서부터 다, 가설이 된 대로 그냥 자동적으로 전력이 나오듯이 이렇게... 이거 이해가 갑니까?

▲질문자(남): 말씀하시는 의도는 집적이 갑니다. ▲큰스님: 집적이 가라고 하는 건데 그림, 허허하... 발전소에서 발전소로 하달이 돼 가지고, 그 때는 그냥 그대로 전력을 뽑아 쓰는 겁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또 마음을 낸다, 안 낸다 할 것도 없죠. 보고 들었으면 그대로 감지가 돼서 그대로 그냥, 그대로 자동적으로 가는 사이 없이 오르고 내려서 오른다 내린다 하는 언어도 붙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직결이 돼 있는 것도 모르고, 가설이 돼 있는 것도 모르고, 위로는 직결이 돼 있고 아래로는 가설이 돼 있으니까 그냥 자기의 그 한자라에, 가설이 돼 있는 자리에 놓았으면 될 텐데, 그 가운데 스위치만 울리면 될 거를, 그거를 몰라서 자기한테 붙어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에서나 뭐 이런 데서 방송이 되면, 할 것은 하고 또 과거와 현재 미래를 딱 한 데 놓고 한 생각 하면 컴퓨터에 그것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 가지고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한 생각만 넣으면 그냥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듯이 그림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모든 거를 옹공포에 넣는 작업만 한다면 생산돼 나가는 것은 자동적으로 생산이 돼 나갈 테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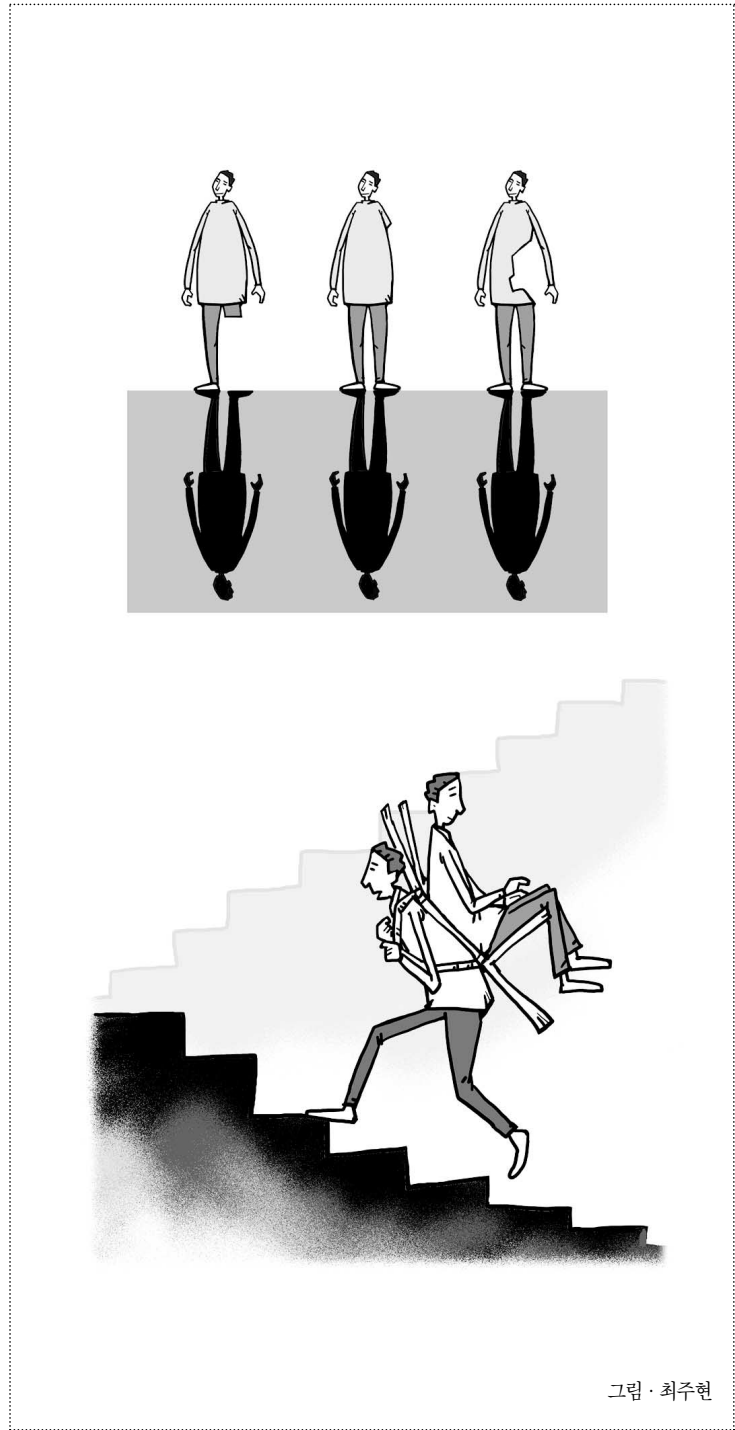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까 걱정하지 말고 거기가 뇌라 이런 말입니다. 이런 뜻도 다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면 벌써 태양계로 은하계로 다 통하게 돼 있고 그것은 뭐... 그래서 대천세계, 소천세계가 한데 합쳐서 중천세계입니다. 우리 사는 데가. 이리나 모두가 중합해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에 깨달은 사람이 많이 있어서 같이 마음을 내 주는지 여쭙는지 하는데, 같이 마음을 내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참나가 됩니까? 그리고 같이 어떻게 마음을 낼 수가 있습니까? 인 간이 마음 내는 것은 사랑적입니다. 인간 이전에 '참', '참 진(眞)'이 거기 한데 모여서, 직결되고 가설이 돼서 모두 그렇게 마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 예기한 대로 한 불바퀴에 모든 것이 직결돼 있기 때문에 딱 스위치만 울리면 거기에서 응신들이 출발을 해서 이 사바세계의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즉 말하자면 그 나쁜 마음속에 전부 응신이 돼서 들어갑니다. 응신이 돼서 들어 갔다가 한 찰나에 나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들이 다 바꾸어집니다. 그러니까 몸, 활동도 바꾸어지고, 마음이 바꾸어지니까,

여러분 몸통이 속에 수습의 그 중생들이, 만약에 이런 공부를 각자 하신다면 천백의 화신(化身)으로 화(화)한 말입니다. 그 중생들이, 업식이 그와 화해서 화신이 돼 버려요. 화한다고 그

래서 '화신'인 겁니다.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데 또 상대방한테 들어가서..., 돼지가 만약에 응해 달라고 하면 돼지한테로 들어가야죠? 돼지가 돼 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응신이라고 합니다. 법신(法身), 응신(應身), 보신(報身) 이립니다. 그것은 한 찰나에 들고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국에서 '스님!' 이러이러합니다. 지금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또 중국에서 '아이구, 이거 피가 멈추질 않아서 오질 못합니다.' 그럴 땐 응신이 아니고는 아니 되죠. 가고 옮이 없이 한 찰나에 들어가죠? 한 찰나가 아니라면 그거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건지는 데는, 돼지가 사람을 보면 둘로 보지만 돼지가 돼지를 볼 때는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저항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돼지뿐이 아닙니다. 꽃이나 무정물이나 식물이나 짐승들이나 나는 짐승들이나 또 곤충이나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접근을 하면 의식을 하고 들어가죠? 아는 사람이라면 아주 제각 집근이 되죠.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으로 변신을 해서 접근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화신이자 응신입니다. 그와 같이 그 모든 일은 그렇게 직결이 돼 있고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직결돼 있는 데는 모든 자기발전소가 한데 합쳐진 자기발전소요.

B26면으로 계속

모든 것을 내면의 용광로에 넣는 작업만 하라!

☞ B25면에서 계속

지금 가슴이 된 데는 현재 세상이란 말입니다.
 ▲질문자(남):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시를 읽는 도리를 되새기고자 애쓰면서 무언의 대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특히 '나'라는 생각이 불편듯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면 그것도 내 속에서 나온 습인 줄 알고 슬며시 놓아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격한 감정이 솟구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자신도 모르게 저 잡난 소리를 마구 늘어놓다가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아이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스님께서는 늘 퇴입력하는 도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만 이렇게 먼저 입력된 것이 잘 지워지지 않는 경우는, 말하자면 습이 워낙 강한 까닭인지요? 아니면 퇴입력하는 마음의 힘이 약한 때문인지요? 놓고 또 놓는다고 하면서 되나오고 되나오니 가르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스님: 그건 입력이 안 됐기 때문에 되나오고 그렇죠. 그것이 말입니다. 자기한테 자기가 자꾸 따지는 버릇을 갖는다면 습입니다. 그게 자기한테만 따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도 따지죠, 일일이. 그게 왜냐하면요. '과거는 지나갔으니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속에 자기가 다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과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몸속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거기서 슬슬. 그저 이때 한 것은 이때 나오고 저때 한 것은 저때 나오고, 그냥 입력된 대로 순서대로 적착 나옵니다. 이거 거지 말 아닙니까. 착착 나오는데 그 나오는 의식들이 수가 없습니다. 그 의식들이 입력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자꾸 거기서 나오는 대로 나오는 것만 알지, 그것이 잘되고 잘못되는 것을 모르는 중생들입니다. 이게 업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대로, 그놈도 거기서 나온 거, 그놈도 거기서 나온 거, 그놈도 거기서 나온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어느 수좌가 동짓날 팔죽을 큰 솥에다 찌는데 팔죽이 부글부글 끓어서 팔죽 방울이 수없이 나오거든요. 수없이 나오니까 퍼뜩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우리 몸뚱이 속에 있는 팔죽 방울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나 여기에 속아서 는 안 되겠구나. 방울대로 따르므로 있는 줄 알고 했는데 아이구, 한 팔죽 솥에서 나오는구나!' 하고 고요. 이제 아시겠죠? 한 팔죽 솥에서 방울이 나오는 거지 팔죽 솥이 따로 있어서 방울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문수! 요 것도..." 자기 법이란 얘기죠. 법신! "요것도 법신! 요것도 법신!" 하고는 주적으로 때렸단 말입니다. "이것도 문수! 저것도 문수!" 하고 그저 때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 가 스스로 익는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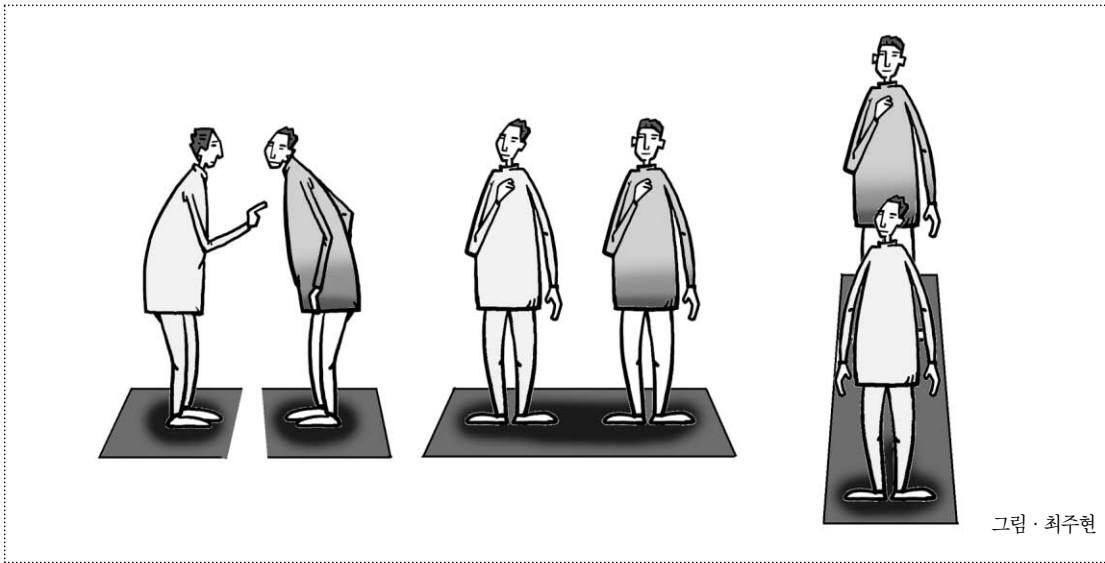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찰나찰나 바뀌니 악과 선을 따지지 말아야

벌써 팔죽은 다 익었으니깐, 열기가 더 오르지도 않고 더 내리지도 않고 아주 평상시처럼 따뜻하게만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팔죽 방울이 올라 오지 않죠. 모두가 하나가 돼 버렸으니깐, 그냥 모두가 팔죽이 돼 버렸으니깐 말입니다.
 그렇듯이 모든 것을, 거기서 어떠한 팔따구가 나오든지, 또 자기에게 누가 되게끔 생각이 나오든지, 또 집안 식구들한테 짜증이 나든지, 또 자식이 잘못해서 속이 상하든지, 모든 것을 거기다가 그냥... 그것도 거기서 나오는 것, 그것도 거기서 나오는 것, 자식의 일이든지 뭐든지 다 거기다가 맡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나오는 걸 거기다가 맡겨 놓을 때, 동시에 '흥, 이렇게 나오는 거라던 몰아서 잘 나오게도 할 수 있잖아!' 하는 생각이 아주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다지 않습니까? '안 되는 일도 거기서 나오는 거라던, 되게 할 수 있는 일도 거기서 나올 수 있잖아?' 하고 돌려 놓는 겁니다.
 속에서 이렇게 팔따구가 날 때 '아니, 불이 일어나게끔 나올 때 불을 가리았을 수 있는 것도 바로 거기 아닌가?' 이럴 때는 아주 선선하게 이 마음이 곧바로 화해 가지고는 아주 좋게 나옵니다. 즐겁게 나옵니다. 웃음도 깔깔대고 웃다가 '아이고, 이게 안됐잖아?' 하는 생각을 하면 웃음이 푹

밋죠? 허허허... 그렇게만 하신다면 모든 게 아주 더럽도 덜함도 없는 잘 익은 팔죽이 돼서 맛있게 맛을 볼 것입니다.
 ▲질문자(남): 고맙습니다. 여기 모이신 범행제들의 가슴에 그 좋은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약이 되고 힘이 되고 모든 공부하는 데...
 ▲큰스님: 그냥, 공덕이라고만 하세요. 허허허...
 ▲질문자(남): 예, 공덕이 돼 가지고 모든 공부하는 데 도움이 크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자(남): 정말 이 세상에 마(魔)가 있는지 그럴 여쭙고 싶습니다.
 ▲큰스님: 이게 봐요. 악과 선이 어찌 없겠소? 동시에 모두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란 놈이 도둑질도 시키고 좋은 일도 시키죠. 그러나 좋은 일 하는 사람이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악한 짓 하는 사람이 악한 짓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타나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찰나찰나 화해서, 착하면 사람도 앞에 딱 치면 어쩔 수 없이 나쁜 짓을 하게 되고, 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딱 치면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기까 좋은 일 하는 사람, 나쁜 일 하는 사람,

것을 참선에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찰나찰나 바뀌니까 말입니다. 어떤 것을 나쁘다고 하고 어떤 것을 좋다고 하겠느냐. 마음을 바로 쓸 때는 이렇게 되고, 또 나쁜 상황이 앞에 딱 딱치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 한 강도가 어느 수풀 속을 지나가는데 어느 여인이 어린애를 안고 입고 걸리면서 "영양" 울고 가더라고요. 밥도 못 먹었는지 "얼마, 밥 줘!" 하고 울고 가는데, 잠혹해서 볼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강도가 아닌 척 하고선 "어린애가 배고프다. 그러는데 먹을 게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깐 "먹을 것도 없거나와 남편도 불잡혀 가서 영 오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집도 오막살이 있던 것을 뺏기고 어디로 갈 데도 없습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돈을 뺏아서 전대를 해 가지고 있던 것과 먹을 것을 좀 훔쳐 뒀던 것을, 전대 돈을 가서 오막살이라도 하나 장만해서 먹고 살라고 주고, 자기 먹여주고 집어 온 거는 그 애들을 주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허허허..." 웃으면서 "도둑질을 하는 놈 위에 또 나는 놈이 있구나." (대중 웃음) 아니, 얼마나 그것이 기가 막힌 말입니까?
 또 한 가지 요거, 잠깐만 얘기하죠. 우리 신도가 집이 없어서 남이 금방 지어 놓은 집을 빌려서,

"팔릴 때까지 들어가 살아라." 그래서 들어갔답니다. 집은 좋지만 그냥 자기는 보따리 보따리 해서 다락에다 넣고선, 내일 아침에 애들 학교 갈 때에 먹일 것도 없고 차비 줄 것도 없어서 엄마가 그냥 속상해서 부글부글 속을 끓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그 집이 좋으니까 도둑이 들어왔더라고요. 허허허... 뛰어넘어와 가지곤 다락을 통해서 방에 들어오려고 다락에 뛰어올라 갔는데, 거기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보따리 보따리만 있고 속을 풀어 보니까 흰 누더기, 뭐 이불 나부랭이 살릴 나부랭이 뭐 이런 거거든요. 다락에서 도둑이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순간 안에서 "아이, 내일 아침에 애들 밥은 어떡하며, 차비는 어떡하면 좋은가?" 하고 타령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주인공, 당신만이 이 애들을 학교를 보낼 수 있고 당신만이 먹일 수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도둑이 들을 때에 '주인공은 뭐고?' 허허허... 주인공은 뉘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 당장 어린애를 보내지를 못하고 먹이지 못한다는 소리에 그만 이 도둑이 가슴이 좀 안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첫 번째, 두 번째 해 가지고 와서 세 번째 들렀는데, 그 도둑질해 온 거를 다락문을 가만히 열고는 거기다가 내놓고서는 다락문을 또 타고 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아이구 참, 기가 막혀! 이것은 도둑질하러 들어왔다가 되 뺏기고 가네!" 이러더라고요. (대중 웃음) 그러니 도둑놈이 어찌 도둑놈만이었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이 이틀날 아침에 와서 깔깔 웃으면서 "스님! 주인공이 이렇게도 살리는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세상에 도둑이 도둑질한 걸 갖다 줘서 애를 무난히 학교에 보내고 쌀 한 가마니 사고 또 연탄 사고 애들 등록금도 주고 이랬다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하니까 "그러게 도둑놈을 도둑놈으로 보지 마라. 모두가, 그저 죄가 뭐가 죄겠어? 다 모르는 게 최고 순간순간 나오는 대로, 업식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환경에 딱치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외려 더 불쌍하지. 뭐가 나쁘고 좋고가 따르므로 있겠느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악과 선은 없습니다. 허허허...

▲사회자: (범회를 마친 후 대중들에게 감사합니다. 성불하시길 바랍니다.)

▲큰스님: (함장하시며) '성불이다' 이런 생각, 이름을 붙이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공덕이 있으시길 빌면서...

※위 법문은 1992년 5월 3일 범행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허스님의 장애인 휠체어 보시 기금마련 달마도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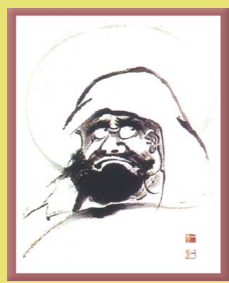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불제자의 인연으로 그 소임을 다하고자 정진함에 있어, 항상 소외된 우리의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소남의 작은 재주로 장애인들께서 조금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장애인 휠체어 마련 달마도 보급운동'을 시작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 주시어 그 뜻이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마도 보급에 동참하여 주시는 고마운 뜻과 장애인들에게 전달되는 내역을 지면을 통해 빠짐없이 공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암 주지 일허장

- ▷ 일허스님
- 부산에서 출생, 사미계수지, 송광사에서 구족계, 운곡,강장원 선생 사사
 - 2001년 중앙승가대학 졸업
 - 2002년 제1회 개인전, 달마-선화의 세계 (부산국제신문 문화센터)
 - 2003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졸업
 - 2005년 한성대학교 박사 과정 재학중
 - 2005년 대한불교조계종 영천암 주지(現)
 - 재적본사, 대한불교조계종 계교구

대지도안?

달마도라 함은 운필이 거침없이 힘차고 간결하며, 먹의 쓰임 역시 깨끗하여 탈속의 경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니,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평온해지는 불가사의한 그림이다.



달마도 大 / 10만원
 달마도 小 / 5만원

직접 그리는 관계로 조금씩 작품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기금마련 달마도 보급운동에 동참하실 사찰이나, 스님께서 연락주시면 달마도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주관 : 영천암 신도회, 수창정진회
- 후원 : 연꽃마을, 진각복지재단, 인천 청학사
- 후원계좌 : 농협 811091-52-133201 (예금주:김영철)

대한불교조계종 영천암 주소: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우곡리 산 200번지 / 전화 : (055)356-2040, 011-867-4747